2024년 제3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 일시 : 2024. 5. 10.(금) 14:00 ~ 16:27

◈ 장소 :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자 (15명)

위원장 : ○○○

위 원 : ○○○, ○○○, ○○○, ○○○, ○○○, ○○○, ○○○, ○○○, ○○○, ○○○, ○○○, ○○○ 전문위원, ○○○ 전문위원, ○○○ 전문위원

배석자 : ○○○ 팀장, ○○○ 담당연구관

◈ 심의안건 (총 51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 5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지원 및 보존처리계획 심사 : 1건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17건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 5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국가지정승격 사전 심의 : 1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10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 12건

(개회)

○ ○○○ **팀장**

위원회 간사인 저희 문화재정책과장님이 오늘 급하게 일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 **위원장**

그럼 제3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팀장**

오늘 안건이 51건이고요. 공고 다 끝나고 최종 확정하는 게 12건 있습니다. 그래서 39건 정도 됩니다. 외부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앞으로 해서 보존처리계획 심사가 5건이고요. 긴급보수비 지원이 1건이고 국가지정문화재 사전 심의가 17건,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5건, 국가지정승격 사전 심의가 1건, 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가 10건, 아까 말씀드린 지정 심의가 12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 <법주사 수정암 석불좌상>

첫 번째 보존처리계획 심사입니다. 법주사 수정암 석불좌상입니다. 보존처리 수행업체에서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법주사 수정암 석불좌상 보존처리공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석불좌상이고요. 동국대학교박물관 전시실 내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1,7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선이고요. 사업의 목적은 현재 석불좌상 표면에 흑화오염물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화오염물들을 모두 제거하는 보존처리를 통해서 향후 안정한 보존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본 석불좌상은 예전에 법주사 수정암 뒤편에 파편으로 흩어져 있던 불상이었는데 그것을 동국대 쪽으로 가져와서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통견식으로 법의를 입고 각연화대좌 위에 가부좌를 하고 있는 불상으로서 통일신라 9세기 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불상입니다.

저희가 보존처리 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존처리 전문가 분을 모시고 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자문의견의 간단한 내용은 흑화오염물과 다른 여타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전시실 내에 대상물이 있다 보니까 습식세척보다

는 레이저세척으로 보존처리를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균열부에 수지처리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내에 있고 표면 석재의 풍화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화처리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존처리 일정은 처음부터 약 90일간으로 잡았는데요. 순수하게 보존처리 기간이라기보다는 본 심의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90일로 잡았습니다.

대상 현황은 말씀드렸고 주변부 보양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시실이 세 곳에 유리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풍화훼손지도 작성, 과학적 분석을 이미 실시했고요. 추후에 보존처리를 실시할 때는 건식세척과 레이저세척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의 전체적인 석불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특별한 오염물이나 파손된 부분보다는, 파손된 부분은 이미 다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흑화오염물 위주로 오염물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흑화오염물도 왼쪽의 무릎 부분 그리고 측면, 연화대좌 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불두 뒤편에는 하얀색의 오염물이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풍화훼손도를 청색으로 나타냈는데 주로 다 흑화된 모습입니다.

디지털 실체현미경하고 휴대용 XRF를 가지고 저희가 과학적 조사를 했습니다. 디지털 실체현미경으로는 표면을 확대해서 측정함으로써 화강암 재질의 여러 곳이 어떤 광물성 입자들로 모여 있는지를 사진 촬영해놓은 상태이고요. 표면의 성분분석은 오염물이 없는 부분을 세 군데 바탕으로 지정해놓고 분석했고 그 외에 기타 검정 오염물이 있는 부분 네 군데와 왼쪽 무릎에 적색 오염물이 약간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해서 총 다섯 군데를 분석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바탕재질에 비해서 흑화된 검정 오염물이 황과 철 함량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추측하건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황화물로서 일단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분석을 조금 더 해서 향후 결과보고서를 낼 때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분석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과학적 분석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건식세척과 레이저세척을 병행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변정리 및 보고서 작성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질문 있으면 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훼손도면을 작성하셨던데요.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번에 보존처리 하시면서 훼손도면을 더 잘 보셔서 어떤 부분이,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훼손된 데가 많잖아요. 머리 뒤, 손 많은데 그것을 올려주시면 좋겠고 보존처리 장소는 확보하셨나요?

○ **사업관계자**

네. 전시실에서 최대한 유리문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보양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준비는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예. 그리고 2차, 3차 자문회의를 하실 때 애초에 자문하셨던 서울시문화재위원이 가셔서 계속 꾸준하게 자문이 일관성 있게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됩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 ○○○ **팀장**

다음은 배자예부운략 등 2번~4번 세 건을 한꺼번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소장처가 같고 수행하는 업체도 동일해서 세 건 같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사업관계자 입장)

배자예부운략, 불조삼경,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세 건입니다.

□ **<배자예부운략>**

□ **<불조삼경>**

□ **<불설대보부모은중경>**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법장사 전적문화재 보존처리 공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7,9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 건수는 총 3건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유물을 이운했고요. 보존처리 조사까지 했습니다. 사진촬영, 상태조사, 과학적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물입니다. 배자예부운략이라는 유물이고요. 크기를 정해놓고 내지가 162장 정도 되는 아주 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의 균열이 심하고 구겨짐과 충해, 습해 얼룩 등이 있고 능화문이 살짝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체가 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 유물은 불조삼경입니다.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가 정해졌고요. 선장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표지균열이라든지 접힘, 충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인데요. 이것은 표지를 한 번 보존처리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지가 실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자예부운략 유물은 물리적 손상이 아주 심하고요. 종이의 이음 부분도 분리되어 있고 덧댐 흔적이라든지 손을 댄 흔적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손상이나 화학적 손상도 약간씩 보이고 있습니다.

배자예부운략은 보기 힘든 포배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것과 조금 다르게 앞표지에 이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이한 사례로 보입니다. 불조삼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서리 마모나 접힘 등이 보이고요.

부모은중경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이 결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역시 충해의 흔적이라든지 찍힌 흔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조사는 크기, 두께, 제작 규격을 볼 수 있고요. 과학적 조사는 색도, 적외선, 실체현미경으로 조사했습니다. 세 권 다 자세히 상태조사를 했습니다. 크기도 실측을 했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자예부운력은 포배장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선장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현미경 조사도 했고요. 색도 측정했습니다. 적외선 조사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유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번짐 테스트하고 결손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장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영인본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영인본 제작에 신경 쓰려고 합니다. 오동나무를 사용하여 보관함을 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 **위원장**

질문 있으면 해 주시죠.

○ ○○○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배자예부운략은 포배장으로 되어서 매우 독특한데 영인본 제작할 때도 그게 가능한가요?

○ **사업관계자**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는 한데 이게 일반적인 포배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엮어지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해체한 다음에 실제 그렇게 했던 건지 후에 다시 손을 댔던 건지는 확인해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예부운략은 능화문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세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원 유물과 유사한 한지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과학적 조사로 두께 등을 전부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종이를 떼면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과학적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보강해서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 ○○○ **위원**

훼손된 부분을 메움 처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판심 부분의 갈라진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 **사업관계자**

판심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얇은 종이로 이음할 예정입니다.

○ ○○○ **위원**

전체 배접하는 형식으로 그 장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 **사업관계자**

아닙니다.

○ ○○○ **위원**

그 판심 부분만?

○ **사업관계자**

예. 부분만 할 겁니다.

○ ○○○ **위원**

그다음에 우측 모서리는 대부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훼손됐지 않습니까.

운략이 그랬던가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부모은중경이 그렇습니다.

○ ○○○ **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음의 형식으로 하나요?

○ ○○○ **위원**

메움, 결손부만 메웁니다.

○ **사업관계자**

예. 종이를 이 모양대로 잘라서 이음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 ○○○ **위원**

일반적으로 영인할 때 종이를 같은 종이로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 **사업관계자**

비슷한 종이로 합니다.

○ ○○○ **위원**

왜 그러냐면 한지에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가 잘 안 되는 경향들을 많이 봐서 표면을 도침을 하는 것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고, 영인을 하게 되면 예전에 만들었던 한지보다 조금 두꺼워져서 전체적으로 원래 알고 있었던 두께보다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서 두께도 잘 맞춰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 **위원**

도침을 철저히 해서, 대부분 영인한 게 두꺼운 경우가 많거든요. 최대한 그것을 줄여주세요.

○ **사업관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

배자예부운략은 장정 형식이 포배장인데 그 포배장도 어차피 그 뒤에 한 것이지만 측면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단단하게 잘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해체해서 하게 되면 저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저기 글자 있는 부분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게 아주 단단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자문회의 3차례 하시잖아요. 관계전문가 자문 받으실 때 저희 동산분과위원 가운데서 고전뿐만 아니라 서지, 고문헌 전문가 자문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 **사업관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 ○○○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모퉁이가 다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보완하려면 아무래도 나간 것보다는 조금 크게 해서 잘라서 하게 되면,

○ ○○○ **위원**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딱 맞춰서 다른 종이를 끼워서 합니다.

○ ○○○ **위원**

끼워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두터워지지는 않나요?

○ ○○○ **위원**

요즘은 메움을 할 때 안 두터워지게 하더라고요.

○ ○○○ **위원**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하다 보면 본문 내용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 <법장사 목조여래좌상>

○ ○○○ **팀장**

다음은 법장사 목조여래좌상입니다.

(사업관계자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법장사 목조여래좌상 보존처리공사 보존처리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살펴본 뒤 문화재 현황으로 넘어가 문화재 손상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존처리 계획에서는 추진일정, 수행계획,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말씀을 드린 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법장사 목조여래좌상 1점입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 원, 사업기간은 8월 1일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과학적 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존처리입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불상은 얼굴 향우측부, 복부, 앞 주름 부분에 갈라짐이 있습니다. 정면 하단에 보수한 흔적이 있으며 밑판이 떨어져 있고 현대의 못으로 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상의 금박 상태는 훼손이 심합니다.

불상의 밑 부분은 속을 파고 뚜껑 판을 덮어 세 군데에서 못을 끼우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나 현재는 원래의 뚜껑 판이 결실되고, 저부 전체에 맞게 밑판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바닥 앞쪽에 '二'라고 새겨져 있어 복수의 불상이 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과학적 분석 결과입니다. X-ray 조사결과 바닥판을 고정하는 데 사용한 못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대의 못으로 추정하고 현재의 바닥판에는 못이 확인 되지 않고 몸체 쪽의 못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바닥판은 후대에 교체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몸체의 얼룩들은 표면의 도장이 나타난 것으로 도장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재질일 것으로 추정하고 일부 홈 부분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부의 복장물은 촬영화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금 층 표면 성분 원소 분석을 위한 XRF 분석을 했습니다. 개금 층 층위 분석을 위한 광학현미경 및 SEM-EDS, 옻칠 층 분석을 위한 FT-IR 분석, 소지 목재 분석은 수행 중입니다.
각 분석에 따른 분석 장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RF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금 층에서는 금, 납, 수은이 검출되어 금과 연백, 주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채색 층의 눈썹과 눈 부분은 현대안료를 사용했고, 받침대는 금, 연백, 주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개금 층 부분은 금과 납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겉면의 금과 내부의 연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납과 금 이외에 수은이 검출되어 붉은색 층은 주사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치마의 하단부분에서는 백색 안료 층의 아래층에서 녹색안료 층이 발견되었습니다. 등 부분의 개금 층 박락 부분에서 2개 이상의 개금 층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채색 층의 녹색 부분에서는 구리와 비소가 검출되었으나 소량 검출되어 양록이 아닌 녹색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흰색 부분은 티타늄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티타늄화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적색 부분은 철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석간주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술부에는 수은이 소량 검출되어 하부 층에서 검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정상계주 부분에는 금, 수은, 납이 검출되어 금, 주사, 연백으로 추정했습니다. 나발 부분은 철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내부에 석간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닥판의 1번 석간주, 2번은 주사, 3번은 백납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면에서 관찰된 개금 층위는 겉면에서부터 금박 층, 옻칠 층, 흑색 하지 층, 연백, 금박, 주사 또는 녹색 안료 층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처리 계획입니다.
보존처리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심의에서 승인을 득한 후 자문회의를 거쳐 보존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존처리 수행계획입니다. 인수, 예비조사를 하고 본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승인을 득한 뒤 자문회의를 거쳐 보존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불교조각, 보존과학 분야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2인 3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리닝입니다. 목조여래좌상의 금을 표면세척 및 연마제로 완전히 제거합니다.
다음은 균열부 보수입니다. 같은 수종의 오래된 나무로 갈라진 부분을 메우고 토회칠이나 회칠로 보수합니다.
다음은 옻칠 및 토회칠입니다. 옻칠 후 토회칠 혹은 회칠하여 삼베발을 없애고, 옻을 5~6회 정도 칠합니다.
다음은 개금입니다. 얼굴, 손 등의 살 부분은 금분으로 개금하고, 의복은 금박으로 개금합니다.
다음은 마무리입니다. 개안 모발 후 처리 후 사진촬영을 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존처리가 완료되면 전 과정을 기록한 보존처리 보고서를 제본된 형태로 제작하고 원본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인력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하자 유지보수 기간은 3년 4개월로 하겠습니다. 보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보존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개금을 하는 거예요? 보존처리만 하는 게 아니

고요?

○ **사업관계자**

손상부가 있어서 완전히 제거 후에…

○ ○○○ **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나요?

○ ○○○ **위원**

불상이 좀 작아서 금액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 **사업관계자**

조금 작은 상입니다.

○ ○○○ **위원**

아까 티타늄화이트가 나온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하셨나요?

○ **사업관계자**

눈 부분입니다.

○ ○○○ **위원장**

개금 층이 두 개 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쪽 개금 층의 성분은 아직은 분석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겉의 것을 뜯어내지 않아서?

○ **사업관계자**

XRF로 촬영하면 안쪽까지 관통되어서 분석이 되어서 층별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겉에서 색깔을 보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됐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위원**

두 층을 다 벗겨내고 개금하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예.

○ ○○○ **위원**

그럼 원래 층은 옛날 것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개금 층 중에 아래층은 처음에 조성했을 때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고요?

○ **배석(사업관계자)**

이것은 처리를 하면서 만약에 첫 번째 층은 카슈 층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층이 옻칠 층이면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대고요. 만약에 두 번째 층도 카슈 층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다 벗기고 그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 ○○○ **위원장**

그러시면 그 바깥층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자문회의를 한 번 하고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카슈 층이 아니면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 보죠.

○ **배석(사업관계자)**

시료 채취를 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만약에 가능하면 원래 개금은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완전히 다 벗기고 하기 전에 그 판단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배석(사업관계자)**

예.

○ ○○○ **위원**

지금 봤을 때 겉이 카슈로 보이는데 안쪽은 옻인지 카슈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요. XRF로는 그게 뭔지 확인할 수 없으니 어차피 유기물 분석한 것으로 해보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은데, 저번에 한 번 보존처리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또 균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했는데 또 균열이 발생해서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해보셔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석(사업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 ○○○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두 번의 개금 층 중에 첫 번째 것을 벗기고 안의 것을 살리면 완벽한 보존처리가 안 돼서 또 갈라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 ○○○ **위원장**

맨 바깥층을 떼어내고 안의 층의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자문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 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결정을 하는 거죠.

○ ○○○ **위원**

자문회의 통해서 해야 해요.

○ **사업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 서울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지원 및 보존처리계획 심사

□ <도선사 석 삼존불상>

○ ○○○ **팀장**

다음은 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지원 심사입니다. 지난 1월에 화재를 당했던 도선사 석 삼존불상입니다. 안건이 사실상 2개인 건데, 긴급보수비 지원심사하고 보존처리계획 심사인데 일단 보존처리계획 심사 들으시고

지원은 붙여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선사 석 삼존불상 보존처리를 담당하게 된 서울역사박물관의 ○○○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 유형문화재 제281호 도선사 석 삼존불상의 보존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사업개요, 추진경과, 대상유물, 손상유형, 보존처리 과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도선사 석 삼존불상의 보존처리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빨리 끝나는 대로 도선사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으로는 레이저 클리닝으로 흑화된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손상된 부분의 원형을 복원하며 약해진 암석의 강화처리로 석질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화재로 인한 석 삼존불상의 그을음으로 흑화된 오염물을 제거하고 훼손된 원형을 복원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 내용입니다. 올해 2월 21일 밤에 시작된 도선사 대웅전 화재로 인해서 불상이 훼손되었고요. 23일에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때 역사박물관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에 27일에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보존처리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 유물인데요. 석 삼존불상입니다. 좌 협시보살상, 중앙 본존상, 우 협시보살상으로 3점이고요. 화재와 살수로 인해 전체적으로 검게 그을리고 파손된 부분들도 보입니다.

손상유형으로는 검게 변색된 부분과 파손된 부분, 균열, 부재의 탈락, 표면 박락과 舊 복원제의 변형 등 전체적으로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존처리 과정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보존처리 순서는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먼저 레이저 클리닝입니다.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형성시켜서 충격파로 오염물질을 기화시켜 제거하는 방법으로 석조표면을 그대

로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불에 그을린 흑화된 오염물을 주로 제거할 예정이고 이외의 오염물로 제거하겠지만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화처리인데요. 발수경화제는 석조유물의 표면에 도포하여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석재조직의 응집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석질을 경화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물의 상태를 보면서 2~3회 정도 도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조물처럼 하중이 많이 나가는 재질의 강화처리라는 것이 드라마틱하게 강화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표면에 바스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강화처리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구 복원제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복원제가 화재로 인해 변형되어 물성이 약해지고 석조물의 미관을 해치므로 기존의 복원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복원제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존불상은 물상이 약해져 있으므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복원제를 안전하게 제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파손된 부분에 설정샷으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복원제의 제거가 끝나면 접착과 복원작업을 하게 됩니다. 균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접착제를 침투시키거나 깨진 부분을 접착하고 결손된 빈 공간에 에폭시 메움제로 채워서 복원하게 됩니다. 특히 좌 협시보살상은 결손 부분이 코 부분인데 사전 자료를 참고하고 자문회의를 통해서 복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D스캔 및 출력을 이용한 복원입니다. 우 협시보살상의 얼굴과 손상 부분이 파손되어 복원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기존의 3D 스캔데이터와 추가 촬영할 3D 스캔데이터를 이용하여 훼손된 부분의 형태만 디지털로 재현하고 3D 프린트 결과물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을 이용해서 훼손된 부분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그 3D 출력물을 우 협시보살상의 결손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정한 후에 다시 복원제와 같은 재료로 복제한 후 이 결과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복원이 완료되면 새로 복원된 부분들이 원래의 색상과 다르기 때문에 유물의 색상과 추가된 재료 간의 색상 차이를 최소화 되도록 색 맞춤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존처리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예. 질문해 주세요.

훼손, 결손 부분을 복원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을 나중에 색 맞춤까지 다 하시잖아요. 감쪽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에도 보고서가 나오죠? 왜냐면 복원도면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 **전문위원**

보존처리 과정을 기록해서 보고서로 작성하겠습니다.

○ ○○○ **위원장**

예. 그리고 이 결손 부분을 복원하는 재료가 어떻습니까? 어떤 재료로 복원하는 건가요?

○ ○○○ **전문위원**

주로 작은 부분들은 합성수지 계열은 에폭시 수지로 사용하고요. 큰 부분은 석조를 조각해서 접착하거나 이런 방법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얇아서 석조로 조각도 안 되거니와 깨질 수도 있어서요. 지금은 그래도 옛날 3D 자료가 좀 있어서 그것으로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에폭시 수지로 복제하여 대체할 예정입니다.

○ ○○○ **위원**

원래 석질이 뭐예요?

○ ○○○ **전문위원**

화강암입니다. 그런데 석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 ○○○ **위원장**

워낙에 약했는데 물을 만나서 더 약해져 있는 겁니다.

○ ○○○ **위원**

저것을 만약에 돌 조각해서 붙이려면 그 붙였던 부분들을 수지로 붙여하는데 그게 나중에 또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 ○○○ **전문위원**

예. 무게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 ○○○ **위원**

무게도 그렇고요. 큰 것이라면 아예 돌로 조각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석조문화재의 저렇게 복원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지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지에 저 화강암 돌가루를 같이 섞어서 복원을 하거든요.

○ ○○○ **위원**

관촉사도 그렇게 했어요. 무거우니까. 그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 ○○○ **전문위원**

예.

○ ○○○ **위원장**

그러면 예산 부분도 지금 계속 이어서 하실까요?

○ ○○○ **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7쪽 보시면 견적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 보존처리를 할 때 필요한 레이저 세척하는 것과 3D 프린팅, 유물 운송비 이런 것들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업체에서 한다면 서너 배, 또는 최소한 5,000만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다행히 역사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하다 보니까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장**

그런데 견적서를 내신 이 업체는 어딘가요? 그냥 한 번 견적을 내본 거예요?

○ ○○○ **위원**

아닙니다. 여기가 레이저 세척과 운송까지 할 업체입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건가요?

○ ○○○ **위원**

예.

○ ○○○ **위원장**

이 업체에서 오셨나요?

○ ○○○ **전문위원**

안 왔습니다.

○ ○○○ **위원**

그래서 흑화 오염물이나 탄화물은 레이저 세척을 하는데 문화재 손상도 적고, 비용은 조금 비싸기는 한데 그래서 저런 것은 레이저 세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전부 시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 ○○○ **위원**

예.

○ ○○○ **위원장**

그러면 관할 구에서는 긴급보수자금이 전혀 지원이 없고 서울시에서 전부 지원하나요?

○ ○○○ **팀장**

예.

○ ○○○ **위원**

이게 관할 구로 나가서 구에서 하는 건가요?

○ ○○○ **팀장**

구에서 집행하고요.

○ ○○○ **위원장**

집행은 구에서 하고. 시에서는 구로 주고.

○ ○○○ **팀장**

다만 제가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운송비가 세척을 하기 위해서 가져갔다가 다시 역사박물관으로 반납하는 비용까지인 거죠?

○ ○○○ **위원**

세척도 역사박물관에서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끝나면 갖다 주는 운송비로 알고 있습니다.

○ ○○○ **팀장**

저는 다 끝나고 아예 도선사까지 운송해주는

○ ○○○ **위원**

예. 그 운송비로 알고 있거든요.

○ ○○○ **팀장**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 ○○○ **위원**

현재 자문위원들이 계속 자문을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자문이 계속 필요해요.

○ ○○○ **위원**

예.

○ ○○○ **위원**

저것은 꼭 필요해요.

○ ○○○ **위원**

꼭 필요해요. 전문가가 반드시 가야 해요.

○ ○○○ **전문위원**

아마 얼굴의 중요한 부분을 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서 두 번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 **팀장**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전심의 17건인데요.

○○○ 전문위원님하고 ○○○ 전문위원님 두 분이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자 상감 쌍룡국화문 반부터 청자 철채 상감 운학문 매병까지 ○○○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청자 상감 쌍룡국화문 반>

○ ○○○ **전문위원**

청자는 4점을 모두 ○○○○○에서 신청했고요. 청자 4점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 상감 쌍룡국화문 반인데요. 이 반은 상태가 굉장히 좋고 많이 나와 있는 기종도 아니고 또 안쪽에 쌍룡문이 잘 장식이 되어 있어서 우

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리 부분도 아래 저부 쪽까지 전부 다 상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외면에 역상감 기법이라고 해서 13세기 때 강진 사당이라든지 부안 유천리 등 아주 최고급 청자를 만들던 곳에서 주로 나오는 기법들이 잘 장식이 되어 있어서 우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된 부분 등이 많이 없어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지정 '可'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완형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종뿐만 아니라 유색이라든지 건조 상태, 문양 기법, 시문된 여러 상태 등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지정 '可'로 의견을 냈습니다.

□ <청자 상감 모란문 화분>

다음으로 청자 상감 모란문 화분인데요. 이것 역시 ○○○○○에서 신청한 유물입니다.
이 유물은 항아리형으로 생긴 청자 화분이고요. 동체 네 곳에 모란문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강진이라든지 부안 등에서 나오는 스타일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봤는데 구연부 쪽에 크랙이 간 것을 수리·보존한 모습이 크게 발견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모란문이 네 군데에 있는데 두 개는 그래도 고려시대에 많이 보이는 모란문인데 나머지 두 개는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은 이 두 문양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지정 불가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 <청자 상감 모란운학문 귀면장식 대호>

그리고 세 번째 청자는 청자 상감 모란운학문 귀면장식 대호인데요. 이 유물은 높이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청자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유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항아리의 어깨 네 곳에 수면(獸面) 장식이 달려 있어서 특이한 기종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진행하다 보

니까 너무 많은 조각을 붙이고 또 한 번 유약을 살짝 입혀서 번조한 흔적들이 보여서 이것은 지정하는 게 쉽지 않겠다 해서 저희는 불가로 의견을 냈습니다. 거의 다 깨진 것을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청자 철재 상감 운학문 매병>

그다음에 청자 철채 상감 운학문 매병은 이렇게 30㎝ 전후의 산화철 안료를 발라서 만든 매병인데요. 이런 스타일은 현재 보물로 지정된 것도 있고 각 박물관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연부 수리 부분이 굉장히 컸고 뒷부분에 이렇게 긁어내거나 이런 수리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 한쪽은 상태가 괜찮은데 반대쪽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것을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불가로 의견을 모아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 **위원**

첫 번째 것이 좋네요. 이러한 형태도 별로 많지 않고 쌍룡의 문양도 좋고 유색도 좋고 해서 첫 번째 것은 보물로 올라가면 좋겠고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 ○○○ **위원**

국화문이 고려 때도 이런 국화문의 문양을 썼어요?

○ ○○○ **위원**

예. 고려시대 문양이에요.

○ ○○○ **위원**

근현대사를 하면서 주로 이런 문양이 나오면 보통 메이지나 일왕가의 문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보통 국화 잎이 11개예요.

○ ○○○ **위원장**

고려시대에도 많이 나와요.

○ ○○○ **위원**

그렇군요. 예.

□ <백자 병>

○ ○○○ **전문위원**

다음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소장 장소는 같은 곳이고요. 백자 병입니다. 이 백자 병은 일단 형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전기 분청사기의 형태를 따른 고식을 간직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이시는 그 유사한 작품 중에는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 무문으로 전하고 있는 게 가장 유사한데요.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병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5세기 후반 관요에서 제작된 양질의 백자이기는 하지만 관요의 최상품이라고 보기에는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물로 지정된 7점의 백자 병과 비교해봤을 때 조형이 아까 앞서 보신 국립중앙박물관의 무문 병과 가장 유사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지정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 <백자 호>

그리고 두 번째는 백자 호입니다. 이 호는 형태를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하는 유물 중에 이 시기의 무문의 백자 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의뢰를 받았을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유사한 작품들을 많이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형태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이것보다 조금 앞선 시기이기는 한데 그 시기에 관요에서 만들어진 항아리 형태인데요. 대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운데 두 번째 유형이랑 맥을 이어서 하는 건데, 고려시대 매병의 영향도 조금 남아 있는 게 완전히 조선의 스타일로 정착하기 전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것은 동국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자 청화'홍치2년'명 송죽문 항아리랑 이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자 청화 송죽인물문 항아리와도 비교해볼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일단 가운데 동체를 접합

해서 만들었어요. 상부와 하부를 따로따로 제작해서 접합했는데 보통 그런 경우 동체를 이어붙인 부분이 번조 과정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그 부분이 일그러지면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세로로 금이 거의 절반 정도가 굽바닥까지 타고 내려간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도록에 실려 있을 때는 금이 안 간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심하게 간 지는 저희도 몰랐고요. 그리고 유색이 앞서 보시는 이런 이대 박물관 소장품처럼 깔끔하고 단정한 게 아니라 윗부분은 환원번조가 돼서 우리가 아는 백자 색깔인데 회색빛이 짙은 백자. 그러니까 백자 중에서는 상품의 백자 색깔이라고 할 수가 없는 백자색이고 아랫부분은 산화번조가 돼서 약간 갈색조를 띄는데 그것도 균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는 되게 안정된 형태로 보이는데 균형이 맞지 않아서 굽 접지면을 갈아낸 상태인데 갈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은 국가 지정 유물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불가로 의견을 모았고요.

□ <백자 대명 발>

다음에는 굽바닥에 '大'자 명문이 있는 조선전기 백자 발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도 굉장히 우수하고 구연부가 살짝 일그러지기는 했지만 번조 상태도 훌륭하고 갑번에 넣어서 하나씩 번조한 최상품의 관요백자입니다. 그리고 굽바닥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시유를 한 뒤에 유면을 긁어서 '大'자를 시문했는데요. 조선시대의 명문은 ○○○ 위원님이 전문가이신데, 위원님의 논문에도 나오지만 '천(天)'·'지(地)'·'현(玄)'·'황(黃)','대(大)'·'중(中)'·'세(世)'·'처(處)'라는 명문을 주로 시문하는데요. 지금 기 보물로 지정된 것은 리움미술관에 천지현황명 백자발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것이 일괄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유물 자체는 최상품이고 '大'라는 명문은 대전에서 최종 사용처를 기입한 명문이라서 의미는 있는데요. 이렇게 명문 하나하나가 유면 음각된 백자발이나 접시 같은 것들은 굉장히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례가 좀 남아 있고 이 리움 소장품은 일괄로 '천'·'지'·'현'·'황'이라는 명문이 다 갖춰진 세트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데 여기 지정 신청을 하신 물건은 '大' 명문 하나만 있어서 많은 고민 끝에 안타깝지만

역시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지정불가로 의견을 모았고요.

□ <백자 달항아리>

다음은 백자 달항아리입니다. 달항아리는 여러 차례 지정심의에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역시 국가 지정심의로 올라왔고요. 18세기 전반 경에 관요에서 제작한 달항아리로 보였고 전형적인 상부와 하부를 따로 해서 접합해서 만든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금이 저렇게 넓게 가 있어요. 그리고 달항아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또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살짝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백자 달항아리가 보통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심사가 들어온 것은 첫 번째 유형, 조금 앞선 시기의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고 일단은 달항아리가 많이 남아 있고 기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게 7점 정도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물건이 견주어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곳에 균열이 아주 크게 있고 보수흔이 있기 때문에 역시 국가 지정문화재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 <백자 대호>

그다음 백자 대호입니다. 이 유물은 일단 사이즈가 61㎝ 정도로 굉장히 크고 이 시기의 무문백자가 잘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청화 안료가 흔하기 때문에 청화로 장식된 것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색도 좋고 보존상태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약간 구연부에 수리흔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좋은 편이고 18세기 4/4분기 때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이 작품과 비교될 많은 것은 이대박물관에 소장된 백자 철화포도문호, 국보로 지정된 것이 가장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지정된 백자 항아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이 제작 시기에 이렇게 사이즈가 큰 무문의 백자항아리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고 작품 자체도 굉장히 양호하고 해서 이것은 충분히 지정할 만하다고 해서 지정

가능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 <백자 망우대명 누비문 합>

그리고 이 작품이 백자 망우대명 누비문 합인데요. 한국 도자사 중에 특히 백자를 보면 형태는 전기 합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물리는 것은 전기와 다르고 후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양각의 장식은 19세기 장식인데 또 망우대라는 게, 잘 아시는 삼성미술관에 있는 청화 백자 망우대명 전접시가 있는데요. 이런 반상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명문이 있고. 그래서 이 조사를 하면서 조사 이후에도 굉장히 비슷한 것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대를 특정할 수가 없었고,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는 무리한 작품이라고 해서 불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재밌게 들었습니다. 비교하는 도판들을 많이 찾아주셔서 정확히 느낄 수 있었고, 특히 무늬 같은 게 되게 예쁜데 여러 가지 조합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사자 의견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이나 질문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데 조금 아깝고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권고할 만한 작품도 있었습니까?

○ ○○○ **전문위원**

예. 조사를 하면서 “국가 지정으로 하기에는 조금씩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백자 대명 발, 이것도 사실 작품이 아주 좋았어요. 이것도 그렇고 첫 번째 보셨던 백자 호, 백자 병이 세 점은 만약에 시 지정으로 올라왔으면 충분히 지정이 가능한 물건이었고 상태도 굉장히 좋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보나 보물과 비교했을 때, 또는 도자사적으로 문화재적 가치 등 이런 위상을 비교했을 때 국가

지정으로는 힘들겠다 싶어서 안타깝게 탈락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잘 남아 있지 않은 것들이고 장식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지정에서 조금 소외됐던 물건이어서 이 세 점 정도는 권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그런데 예전에 제가 리움을 조사해봤을 때 리움은 국가 지정 외에는 시 지정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럴지 어떨지 알 수가 없어서 실제로 소유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 지정은 많으니까 시 지정은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위원**

그런데 도자기에서는 조금 애석하다고 하는 부분이 시기가 조금 빠르잖아요. 그리고 18세기 것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그런 시기 차이는

○ ○○○ **전문위원**

조금 희소하기도 하고 도자기 지정이 된 것 중에 보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명문이 있거나 문양이 화려한 것이 이목을 끌기 때문에 먼저 지정이 된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봤을 때 이런 무문의 병이나 항아리, 발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국가 지정으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다들 조사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다수)

현장에 가셔서 조사하시고 또 바쁘신데 오셔서 발표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1시간을 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정회)

(속개)

○ ○○○ **팀장**

그럼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 <이경윤 필 전가지보>

다음은 서화 분야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이경윤 필 전가지보, 국가 지정문화재 심의에 대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라고 알고 있죠. 지난 3월에 이미 두 건이 올라왔던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겸재 정선의 작품하고 계회도 하고. 사실 이것도 그때 같이 조사가 됐는데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화첩입니다. 호접장이라고 해서 한 장을 넘기게 되어 있고요. 제일 첫 면의 왼쪽 위에 묵서로 전가지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전체가 2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처에서는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화첩 내에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소장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따라서 22면의 내용과 재질 그다음에 특이사항, 사이즈를 분류했고요.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 속에 들어 있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4개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전에는 이 화첩의 전모에 대해서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 있는 것이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것 위주로 소개가 되고 뒤의 것이 가끔 가다가 나오고 또 따로 따로 소개가 돼서 도대체 22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도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4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 물론 이것은 그 전에 이 화첩을 처음 소개한 게 1966년에 최순우 선생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화

첩을 보니까 앞의 아홉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홉 점을 묶어서 그냥 산수인물첩이라고 일종의 별명을 붙인 게 그 후에 통용이 돼서 다 이것을 산수인물첩이라고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처에서도 지정 신청을 할 때 산수인물화첩인가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처음의 9면의 그림은 통상 이경윤의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고요. 이경윤이 누군가 봤더니 이 사람은 종친이고요. 조선 전반기인 임진왜란 전에 그림으로 굉장히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고 그때는 종친들이 벼슬에 못 올라가니까 취미 삼아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동생 이영윤도 유명한 화가였고 그림 일부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그 서자인 이징입니다. 이징은 조선 후반기 초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화가이죠.
그리고 이 화첩과 관련해서 하나 이 사람의 행적에서 중요한 것이 명나라에 사절로 두 번이나 다녀옵니다. 아마 그때 이 화첩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당시 중국에 유행하고 있던 최신 화풍이죠. 이경윤이라는 화가가 거기 가서 그것을 접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화첩에 대해 또 알려져 있는 내용이 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경윤의 그림을 모아서 그것을 화첩으로 꾸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그때 송도삼절이라고 불렸던 최립이라는 문장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가이고요. 이 사람이 남긴 글을 모아서 간이집이라고 하는 문집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집에 실려 있는 '서도록전'이라고 하는 글의 내용과 여기 앞에 나온 9편의 그림에 적혀 있는 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자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집에는 두 번에 걸쳐서 글이 지어졌다고 나오는데요. 처음에 5편의 글을 짓고 그 글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요. 그런데 문집은 자기 문집이니까 분명히 서명을 안 하죠. 그런데 이 화첩을 보면 면마다 간이라고 서명이 있습니다. 간이는 최립의 호입니다.
그리고 한 경우에는 화제를 두 번 적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적은 것도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처음에 내용이 이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라서 다시 쓴다. 이런 내용이 문집과 이 화첩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미에 역시 문집에는 안 남아 있지만 '기해상춘(己亥上春)'이라는 연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보면 1599년 음력 정월이라고 해서 그 문집에는 그게 언제 쓰여 있는지 안 나오지만 이 화첩

으로 인해서 그 글이 1599년에 홍준의 부탁을 받고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섯 점의 작품에 대해서 글을 쓴 다음에 이 홍준이라는 사람이 아마 글을 다 못 받았는지 아니면 그림을 더 모았는지 한 번 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네 편의 글을 또 받아요. 그것도 문집에 별도의 항목으로 실려 있고 이 화첩에 계속 그 네 개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 면에는 첩면(帖面)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제작한 이유가 적혀 써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경윤이라는 사람이 훌륭했는데 내가 그 그림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보니까 좋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도 역시 '만력무술동'이라고 쓰여 있어서 1598년에 처음에 이 글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간이당 최립의 9편의 글이 이 홍준이라는 사람이 모은 이경윤의 9개 작품을 보고 쓴 게 됩니다. 그러면 홍준이 누구인가 찾아봐야 하는데요. 남양홍씨이고요. 진사가 됐고,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올라갔습니다. 최립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사신으로 갈 때 시도 써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화첩 외에 다른 족자 그림, 이경윤의 족자 그림도 홍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또 다른 문인한테 찬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글도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림 자체를 보게 되면 처음 9장의 그림에서는 다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경윤의 작품에서 얘기하는 특징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작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경윤의 화풍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맞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전반기에 안견의 화풍이 있다가 새로운 절파화풍이 등장하는데 그것의 대표작가가 이경윤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화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파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를 보시면 화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9개가 아니고 7개만 있습니다. 산수 2개가 없어요. 이것으로만 보더라도 ○○○○○ 것이 먼저이고 국립중앙박물관 것이 나중 것이라고 유추할 수도 있는데 쓰여 있는 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90페이지의 디테일을 비교한 것을 보시면 ○○○○○에 있는 것은 그림 위에 글씨가 막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준이 모은 그림을 간이당한테 가서 부탁하니까 그 위에 빈칸을 찾아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반면에 국립중앙박물관 본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쓰니까 이 글 부분을 여백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여백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더라도 선후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에 있는 것을 보면 잘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글 쓴 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붙인 부분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화첩을 얘기할 때 항상 같이 거론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본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홍준 시기에 만든 화첩이냐?' 하는 조금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간이당 집에 실려 있는 순서와 이 화첩에 실려 있는 순서가 다르거든요. 글의 순서가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는 2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21면까지가 그림인데 제10면부터 21면까지 있는 그림들은 통상적으로 저희 회화사 연구자들이 볼 때 이경윤 그림으로 보기에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자인 이징의 작품이 섞여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섞여 있다는 점. 그래서 그동안 뒷부분이 잘 소개가 안 됐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두 번째 글씨가 잘 안 읽히는데 어쨌든 '김', '홍'자 비슷한 게 쓰여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대략 17세기에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인물 같아요. 그것으로 판단하건대 아마 이 화첩을 만들 때 이 문서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맨 뒤에 붙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화첩은 17세기까지는 연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수인물화첩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경윤의 가장 신뢰할 만한 작품 9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이경윤의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작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화풍을 주도했던 이경윤의 화풍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림이고 더 나아가서 당대를 대표하는 문장가인 최립의 친필 글씨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사람 글씨가 문집에 없는 일부 내용까지 포함해서 들어 있어서 작성 연대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자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 지정문화재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내렸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명칭은 물론 심의하면 거기에서 다시 판단하겠지만 이 물건에 적힌 대로 일단 전가지보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1598년이나 1599년으로 시기를 확실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 **위원**

그것은 이 화첩에 최립이 글을 쓴 시점이고 이 그림과 화첩은 따로따로입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의 연대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조금 복잡합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위원**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전체를 다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 ○○○ **팀장**

예. 가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정희 필 시경루>

○ ○○○ **위원**

그다음 건은 김정희 필 시경루라고 하는 서예작품이 역시 국가 지정으로 신청이 들어왔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추사 김정희 작품은 워낙 논란이 많은 것이고요. ○○○ 연구관님, 이것도 시 지정문화재로 올라왔던 게 맞죠?

○ ○○○ **담당연구관**

예. 2023년에 한 번 심의를 하셨습니다.

○ ○○○ **위원**

예. 이것은 시 지정으로 지정신청이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던 작품입니다. 이번에 조사위원이 바뀌어서 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있는 시경루라고 하는 현판이 있어요. 그것과 같은 글씨이고 따라서 그 현판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모사를 육필, 붓글씨로 쓴 것인데 그것조차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가필을 많이 했더라고요.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조사위원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가시죠.

□ <김정희 필 창해등룡>

○ ○○○ **위원**

다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자가 같은 분이죠. 이것도 역시 시 지정으로 올라와서 부결이 됐다가 다시 국가 지정으로 올라온 건인데요. 이 경우도 추사 김정희의 창해등룡이라는 서예작품이고요. 냉금지라는 데에 했는데 어쨌든 종이, 글씨, 인장 다 두루두루 미루어봐서 여러 가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우수한 작품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부결 의견을 냈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으로 건으로 넘어가시죠.

□ <월야한산도 수루 해갑 휴식도>

○ ○○○ **위원**

그다음은 조금 흥미로운 작품이 역시 또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이 와서요. 제목이 '월야한산도 수루 해갑 휴식도' 길게 붙어 있었는데 성웅인 충무공 이순신과 관계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수루에 홀로 앉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해갑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방어시설이었고. 그래서 99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건물이 하나 있죠. 중층으로 된 누각 건물이 있고 둘레에는 둥그렇게 성벽이 둘러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로는 널따란 호수 같은 물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에 섬이 하나 있고요. 그 섬에 인물이 하나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인물이 지붕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보면 멀리 원산이 보이고 그 산 가운데에 흰 달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삼단 구도인데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상팔경도의 동정추월과 비슷한데 딱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의 화풍으로 보면 맨 상단에 그려진 산수화풍, 100페이지 제일 위의 세부 사진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간화풍, 민화라고 하는 화풍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솜씨가 좋은 화가가 그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을 국가 지정으로까지 신청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의 활동과 관련된 지역을 그린 아주 희소한 그림이라는 점인데 그것을 저희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민간화풍으로 그려진 산수화가 특정한 실경을 그린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누각에 있는 깃발이 조금 독특한 소재이기는 한데 이 깃발은 나름대로 무슨 규칙에 의해서 위계상 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깃발도 수영에서 썼던 깃발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소장자는 그런 것을 찾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림은 독특해요, 못 보던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지정 사유로서 충무공 이순신의 한산도 수루와 관련되는 그림이라는 것을 저희가 전혀 신뢰할 수가 없고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림의 수준도 국가 지정으로 하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황은 다 최근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국가 지정문화재로 신청하기에는 미흡하다. 그

래서 부결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사자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팀장**

다음은 공예 분야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정우4년명 청동북>

○ ○○○ **위원**

정우4년명 청동북은 지난번 동국대박물관 소장본 2개를 할 때 제가 보고서를 조금 늦게 써서 오늘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연대가 1216년인 게 확실하고 102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1216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금고라든지 반자라든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히 반자라는 명문이 딱 쓰여 있어요. 1216년 3월에 제작했고 이렇게 크게 된 것은 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초기 유물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도 청동녹이 확인되면서 보존상태까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103쪽에 제작시기가 있는 것 중에서 최근에 보물로 지정된 것을 다 열거했는데 1085년, 1091년, 1962년 등등해서 현재까지 지정된 것 중에 1216년이면 꽤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늦게 된 게 천수원명, 온양민속박물관이라고 하는 구정문화재단에 있는 것도 지정이 될 정도로 12세기나 13세기 청동북이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정 가치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105쪽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연꽃무늬도 좋고 당초무늬도 좋으면서 그다음에 명문이 확실하게 잘 남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정된 것들을 한꺼번에 쭉 열거해서 107쪽에 놔보면 천수원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밀리지 않고 지정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조사자들은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 <을사인복사명 청동북>

이번에는 1185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명문이 109쪽에 보시면 을사인복사명 청동북이고 12세기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102쪽에 있는 정우4년명 청동북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 데에 비해서 여기는 안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금고라고 쓰여 있어서 그런 게 확실하게 보이고 동국대박물관에서는 이게 둘 다 청동북으로 신청했는데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다 개정해서 청동북으로 불러요. 그래서 제가 청동북으로 다 바꿔서 썼고요. 그다음에 명문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앞의 정우4년명은 사찰명이 지워졌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을사인복사명은 확실하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을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나머지 뒤에 110쪽에 보시면 을사년, 대정년 이렇게 나머지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것이 1185년에 해당되는 연대가 거의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12쪽 보시면 명문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 당시에 해당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정우4년명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청동북으로 보물로 지정된 사례도 최근에 많이 생기면서 그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114쪽을 보시면 앞의 정우4년명보다 조금 더 시대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자방이라든지 외구에 있는 문양이라든지 구연부라든지 넝쿨문 같은 것들도 매우 좋기 때문에 이것은 을사라고 되어 있지만 1185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고려시대 것으로 청동북 중에 지정 가치가 있다고 저희 조사자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을사인복사명 청동북이 12세기, 정우4년명 청동북이 13세기 것으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청동북의 입이 조금 똟어진 것과 많이 똟어진 게 시대 변화인 거죠?

○ ○○○ **위원**

예. 시대차이도 있고 그 시대에 따라서 주물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 ○○○ **위원장**

시대가 내려올수록 크게 똟나요?

○ ○○○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앞의 것은 닫혀 있기 때문에 금고이고 뒤의 것은 반자라고 부릅니다.

○ ○○○ **위원장**

그래서 명칭이 바뀌는 거죠?

○ ○○○ **위원**

예. 명칭도 바뀌는데 그게 또 정확하게 여기에 쓰여 있어요. 특히 반자라고 쓰인 것은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이는 거고 문양도 시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12세기와 13세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유물입니다.

○ ○○○ **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 ○○○ **위원**

명칭은 어차피 수정 제안해서 청동북이라고 하셨는데

○ ○○○ **위원**

한자는 반자, 한자는 금고 이렇게 썼어요. 명문에 있는 것으로.

○ ○○○ **위원**

유물 명칭이 기존에 지정된 것을 보면 을사 같은 것은 안 들어가네요. 그냥 사찰명, 그러니까 인복사명만 들어가고

○ ○○○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정우4년명에는 사찰명이 지워져 있어서 그냥 정우4년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인복사명은 을사가 안 들어가면 연도를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 ○○○ **위원**

근데 그 표에 나온 것들은 다 그게 없는 건가요?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것들이요.

○ ○○○ **위원**

거기는 있어요. 명문들이 있는데 지정할 때 주로

○ ○○○ **위원**

유물 명칭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서요. 기왕 맞추는 김에 맞춰서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요.

○ ○○○ **위원**

근데 그게 조금 다른 게 12세기 작품 중에 두 번째 것을 보면 안동 용수사 대정삼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연도까지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천수원명도 원래는 정풍 7년 천수원명 이러다가 최근에 지정할 때 그냥 천수원명만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정할 때 고성 옥천사는 고성이라고 안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옥천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문화재청도 아직은 정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청동북만. 왜냐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천수원명 금고라고 되어 있지만 천수원명 청동북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동북만 청동북으로 되고 을사를 혹시 빼면 어떨까 하는데 우선은 넣어놓고, 문화재청에서 결정하겠죠.

○ ○○○ **위원장**

한천사는

○ ○○○ **위원**

예전 것은 저희가… 황수영 선생님이나 진홍섭 선생님이 먼저 발견하면 그것은 지정했던 것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 것도 지정된 게 있더라고요. 연대가 한참 내려가는데도. 요새는 금고는 내려가는 것은 안 되고 고려 것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조사자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 ○○○ **팀장**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입니다. 불화 부분은 ○○○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고 전적 부분은 ○○○ 위원님께서 소개해주시겠습니다.

○ ○○○ **위원**

이 작품은 동국대학교에 소장된 것으로 워낙 잘 알려진 사경입니다. 백지에 금니, 금으로 글을 쓴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앞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다른 곳에 있는 앞의 변상도와는 굉장히 다른 작품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게 지금 여기 사경을 한, 경전이 40권 화엄인데요. 40권 화엄을 번역한 번역자의 번역 장면을 여기 앞에 넣었고 그다음에 뒤에 그림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 알려진 40권 화엄은 대개 뒤에 있는 변상 부분만 있는데 처음으로 계빈국의 번역자의 내용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입니다. 근데 아마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그림 부분을 보면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이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신 분들이라든가 이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지금은 이렇게 절첩본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권자본 형식의 것을 잘라서 잇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형태를 보면 지금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아마 많이 보셨던 것처럼 필선이 아주 섬세하고 유려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인물 표면도 그렇고. 그래서 사경의 그림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경들이 대개 감지에 금니로 변상을 그린 것이 일반적인데 이 그림은 백지에 금니로 했다는 것도 굉장히 희귀한 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 **위원**

이어서 전적 분야 검토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변상도하고 발원문이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봅니다. 그래서 좌측의 변상은 재장황이라는 표현을 썼

는데 재장황을 하면서 이어붙인 과정에서 완전한 형태는 남아 있지 않은데 어쨌든 저런 역경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은 저게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재동자에 채색 사용 이런 것이 해설에 보시면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그대로 다 수록했고요. 나머지는 연대 이런 것도 1390년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원자가 고산 희순으로 강우춘 외 4명과 함께 사경 불사를 함께 하였다. 이 기록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작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이 그림이 원래는 40권 화엄경이니까 선재동자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리고 여기만 남아 있는 거죠?

○ ○○○ **위원**

그렇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제작 지역 등을 유추할 수 있나요?

○ ○○○ **위원**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 **위원장**

1390년이면 조선을 건립하기 2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수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조사자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

○ ○○○ **팀장**

다음은 국가등록문화재 사전 심의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려대박물관에 있는 자료인데요. ○○○ 위원님과 함께 조사를 했는데 시기가 굉장히 지났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신청 제목은 서유견문 초고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초고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필사 교정본이라고 제목을 바꿨으면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길준이 서양 견문을 하고 1889년에 국·한문 혼용으로 편찬하고 인쇄한 시점이 189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895년 인쇄하기 직전에 필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정을 다 한 것입니다. 교정을 한 것이 135페이지에 참고자료로 표시한 이게 인쇄본입니다. 이것은 간혹 많이 나오는 책 중의 하나인데 거기 마지막 판권지에 보면 출판교열자라고 해서 어윤적, 윤치오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 표시를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아닐까 고민하고 있고 초고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저 책이 총 10책인데 10책 중에서 9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필사의 형태가 필획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교정용으로 책자를 만들거든요. 필사본을 많이 만들어서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겠죠. 그 위에서 필사교정을 한 겁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여부는 이 내용 자체는 거의 최근의 연구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총 20편 중에서 1~2편은 유길준이 유학하던 덤머 아카데미 지리교과서 내용이 주로 번역됐고 3~18편까지는 그중에 반까지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 이게 번역이 되었고 19~20편까지는 ‘만국명소도회’라는 것이 참고되었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이미 다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 쪽의 선생님들은 초기에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상사적 의미까지 부여했지만 최근에는 깊이 있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는 잘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한 책이 결락되어 있는데 교정 이전 상태, 그러니까 서유견문 교정 이전 상태를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일단 이 자료를 국가 등록문화재로 상신하는데 동의했습니다.

○ ○○○ **위원**

설명을 잘하셔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처음에 만들 때 내용 자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 ○○○ **위원**

유길준의 글씨예요?

○ ○○○ **위원**

아니죠.

○ ○○○ **위원**

고려대학에 두 번 기증이 되었어요. 처음에 이것 말고 그 뒤에 또 문서들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2000년대에 들어가서 그때 봤는데, 본인 글씨가 아니라 주로 다른 사람, 회장 많이 해서 그런 문서가 많아서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오고서 배포하는 도중에 아관파천이 나서 유길준이 망명하고 해서 실제 읽지를 못 해요. 그래서 1900년대에 와야 무슨 운동회 끝나서 그런 게 일본에서 가지고 와서 배부도 제대로 안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영향은 그 시기에 없었어요. 읽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1900년대 넘어서며 하여튼 처음 책이라고 해서 그랬지 실제 읽은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을 거예요. 배부를 하는 도중에 누구한테 보낸다고 쓰다가 아관파천이 나서 바로 도망가야 해서 그 배부가 잘 안 됐죠.

○ ○○○ **위원**

고고학에서는 국·한문 혼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 ○○○ **팀장**

그러면 가결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번은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1.21사태 당시 최규식이 착용했던 근무복 및 동점퍼, 최규식

서울 시민증, 최규식 경찰신분증>

○ ○○○ **위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 자체가 1968년 1·21 사태 때 김신조 일당과 청와대 뒤쪽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제지하는 과정에서 최규식 경무관이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장이었고 그래서 진두지휘를 하다가 여기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이라든가 총탄 자국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혈흔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 옷 자체가 경찰복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기에는 한계가 많죠. 사실 이것은 그냥 근무복이거든요. 그래서 제도변화라든가 경찰복의 변화 등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141~142페이지의 신분증을 보시면 경찰관 신분증명서인데 1962년도에 발급된 신분증입니다. 여기에 중령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군인이 예편한 다음에 경찰로 전직을 하는 제도가 일정기간 동안에는 공무원 사회에 많았으니까 중령이라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왼쪽의 사진하고 위에 테이프로 붙여놔서 지금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찰관 신분증명서 자체가 경찰 신분증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앞뒤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서울시 특별시민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고, 제대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민증이라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증' 이런 것으로 해서 혼란스러운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보통 증명서를 발급해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일련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1.21 사태하고 이 두 개의 신분증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의 복식은 1·21사태하고 관계가 있지만 이 시민증은 어떤 부분에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신청하기는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이어서 발표해주시죠.

□ <선한약물학>

○ ○○○ **위원**

선한약물학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1931년에 초판이 발행됐고 1937년에 6판이 발행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이었고 그다음에 조선약학교의 특별과 7회 졸업생 김수만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의학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한 행림서원에서 간행되었고 속표지에 기재된 것처럼 한약종상 시험 준비를 비롯해서 약학 관련 교육에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사진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서구식 인쇄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생약학 교과서로 한국 약학사에서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신청한 본 서적이 6판인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책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재로 여러 차례 간행이 되었고 동일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현재 실제적으로는 도서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어 희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초판 발행본이었다면 그나마 초판이라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지정 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조사자 의견에 따르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수증기 압착 식물표본도감>

○ ○○○ **위원**

수증기 압착 식물표본도감입니다. 이 책은 1855~1856년 비엔나에서 총 5권으로 발행된 식물도감입니다. 책 크기가 타블로이드 크기로 굉장히 큰데 총 5권이에요. 식물 표본을 수증기를 이용하여 원형 그대로 압착한 다음 이를 동판에 음각해서 세피아 색깔 잉크로 인쇄한 것이고 Nature-printing이라는 기법으로 제작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각 권에는 이 식

물들이 분류법에 따라 분류한 것이 100종 정도 인쇄되어 있고 실제 식물 도감을 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출판된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 등에 일부 얼룩이 있지만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펄프지를 가지고 쓴 책인데도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책의 희소성이나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는데 이게 해외에서 출판된 것을 누가 사서 들고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것을 과연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 그때 당시 조사를 하면서 조사위원들께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 ○○○ **위원장**

문화재청의 지정 규정에 예전에는 해외 문화재는 안 됐는데 이제는 그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가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겠죠. 국내외인지 여부는 요새는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실 양탄자 등 외국의 것들이 지정되는 것도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하면서 잠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등록해서 할 필요 없이 보관유의 권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조사자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조선약학교 연고판, 칼>

○ ○○○ **위원**

그다음은 조선약학교 연고판과 칼입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저렇게 탁구채처럼 생긴 건데 오른쪽 중간에 있는 것을 보면 왼쪽 부분이 파손되었어요. 그다음에 뒤에 번호가 쓰여 있는 것을 보시면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사용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조선약학교에서 연고를 조제할 때 사용한 도구인데 사실 실습용으로 사용한 것들이죠. 조선약학강습소가 근대 약학교육 기관의 역사로 봐서는 최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올라가지만 1915년 개

교한 조선약학강습소는 야간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던 1년짜리 학원이라는 겁니다. 1916년 조선약제사시험에 이 학교를 이수한 졸업생 3명이 합격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학교를 세워야겠다고 해서 1918년에 조선약학교가 생기게 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선약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식 약학교의 기관이라는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신청된 저 자료를 사진에서 보듯이 일제강점기 때 사용하던 제약 혹은 약학 관련 도구로 한국약학사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유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또 약학 전공 학생들에게 학문의 역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좋은 교육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도구가 이런 교육적 의미는 물론 문화재로서 가치를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적으로 의학이라는 개념 속에서 약을 조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교육적인 측면 자체가 이것이 과연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해서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사자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국가지정승격 사전 심의

□ <법주사 수정암 석불좌상>

○ ○○○ **팀장**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는 마쳤고요. 다음은 시 유형문화재에서 국가지정승격 사전 심사입니다.

아까 법주사 수정암 석불좌상의 보존처리 때 보고받으셨던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장**

네. 아까 보존처리 관계로 보셨던 작품입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작년 10월에 했는데 조사보고서를 늦게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수가 너무 많이 됐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손, 머리 등 이게 워낙 조각조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가 지정문화재 가운데서

도 보수된 예가 많이 있고 요즘에는 또 옛날과 달라서 보수를 해서 지정 신청을 올리기도 해서 법주사 수정암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어디에 처음에 모셔졌는지 출토지가 확실하고 어느 정도 나말여초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157페이지하고 156페이지 '도5'에 대좌가 나오는데요. 팔각연화대좌의 받침석에 보통은 사자를 일곱 마리를 새기거든요. 그런데 이 상에서는 여덟 마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확실치 않은 게, 마지막의 그 하나가 보수가 된 건지 확실하지 않은데 아까 보수하는 업체에 제가 훼손도면을 확실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에 여덟 마리라는 것이 확실하면 나말여초의 전환기의 어떤 도상학적인 미스인 겁니다. 실수거나 그런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는 대개 위에 봉안되어 있는 비로자나불인 경우가 10개 중에 8~9구예요. 그런데 이 여래상은 항마촉지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으나 그것은 학술적인 문제이고요. 또 전체 한국조각사에서 중요한 작품이라는 판단 하에 국가 지정 승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팀장**

예. 그러면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사명대사 필 무량광, 경차영연석상운, 초서 시고>

다음은 시 지정문화재 10건이 남았습니다.
사명대사 필 무량광 등 3건입니다. 서예 분야이고요.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서예 작품, 사명대사 유정이죠. 그것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요. 내용이라든지 서명 이런 것은 다 구색을 맞추고 도장도 찍혀 있고 그런데, 일단 서예에서 가장 중요한 필치로 봤을 때 일단 세 작품의 글씨가 동일인의 필치로 보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서예 전문연구자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유명한 사명대사 유정의 진작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그것을 떠나

서 서예사 측면에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훌륭한 작품으로 판단되지가 않아서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대혜보각선사서>

○ ○○○ **팀장**

다음은 전적 및 고문서 분야입니다. 대혜보각선사서,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혜보각선사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혜 종고의 편찬서이고 교과 과정에 사집과에 들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유통된 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판각 시점이 1568년이라는 것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가 맨 마지막 장, 간기 부분인데요. 165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간기 부분의 오른쪽 면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 면의 오른쪽 면에 있는, 이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글로는 결락되어 보사한 부분이고 결락되어서 보사한 부분은 이 한 페이지가 보사되어 있고요. 현존하는 동일 판본이 여러 종 알려져 있고 시기는 이르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용을 보사하고 표지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원 자료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한 장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붙인 것은 또 같은 판종인 거죠. 원래 제대로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쪽 저쪽 면이 정연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쪽의 얼룩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작품이지만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

인쇄를 다 한 다음에 장책을 위해 잘라낼 때 책마다 조금씩 윗부분의 공

간, 서미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남기는 쪽이 있고 서각이라고 하는 밑 부분을 많이 남기는 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는 왼쪽의 간기 부분은 서미 부분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밑에는 저렇게 차지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책은 거의 비등하게 있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고 또 그렇게 맞춘다고 하면 종이가 없는 부분을 다시 덧댈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할 수 없이 묶어놓고 잘라놓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 ○○○ **위원장**

같은 형식의 것을 잘라서 붙이면 모를 텐데요.

○ ○○○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 하다 보면, 여기서는 모든 작업을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판에서 인쇄를 하더라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 **위원장**

조사자 의견에 다들 동의하시죠?

□ <백자 청화 운룡문 호>

○ ○○○ **팀장**

다음은 도자 분야입니다. 백자 청화 운룡문 호 등 5건을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예. 이것부터 해서 다섯 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장에서 먼저 조사하고요. 이 보고서의 180쪽에서 193쪽에 제시되어 있는 자연과학 분석, 자외선 장비로 한 번 더 검증해주시고 X-ray 사진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 위원님께서 보완해 주셔서요. 그것을 같이 참고해서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 그다음에 차후에 받았던 과학적 조사 내용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오늘 유물들의 높이를 강조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백자 청화 운룡문 항아리는 규격이 59㎝입니다. 실제로 재었을 때는 59㎝보다는 조금 더 높더라고요. 살짝 틀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로 좌우대칭이 다 이루어져 있어서요. 앞서 ○○○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이 되면 그대로 딱 올라가기 어려운 편인데요. 그래도 이 개체는 상당히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원호, 입호라고 얘기하는데요. 원호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달항아리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입호는 위아래로 길쭉한 항아리를 얘기합니다. 대체로 조선시대 항아리들은 대부분 다 입호의 형식이 많고요. 특히 큰 항아리, 원호 동그란 게 조금 커지는 게 17세기 말~18세기 전반, 우리가 달항아리라고 부르는 개체들이 그 시기에 특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대부분 입호이고 입호도 그 크기에 비례해서 원호의 크기가 커지듯이 이 입호도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는 조금 커지는 게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개체는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원통형 구연부랑 전체가 대체로는 잘 남아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표면 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168~169페이지에 '도7'부터 '도11'까지 해서 이것과 유사한 그릇들을 제시했는데요. 도판 6번에 제시한 것은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정조가 현륭원을 방문했던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화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뚜껑이 있습니다만, 화준이라고 해서 용상 앞에 혹은 전체 잔치의 특정한 공간에 놓아서 준화, 이 꽃을 가화를 꽂아놓고 자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에 비해서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주준이라고 해서 술을 담아서 의식에 활용하는 술을 담는 게 있는데요. 정확하게 큰 것은 화준, 작은 것은 주준이라고 하는 문헌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확인하는 유물들의 크기를 보시면 169페이지의 도11번은 40㎝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 대상과는 20㎝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단에 규문이랄지 펜촉형 연판문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그 연판문이 생략되어 있고 용의 발톱도 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조의 발톱에 상하단에, 특히 하단에 이런 규문, 홀 같이 생겨서 규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산처럼 생겼다고 해서 규문, 혹은 산문이 있고 구연부의 외면에도 이게 당초문까지 들어가는 오조룡의 쌍룡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남아 있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특히 이 문헌에

나오는 것들과 매칭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장에서는 지정 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169쪽 '도9'번 혹은 그 옆에 있는 유물들은 구연부는 다 복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연부는 복원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전체 높이나 외견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번에 조사했던 것들은 상대적으로 잘 남아 있어서 현장에서 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 **위원장**

조성연대를 그냥 조선으로 쭉 쓰셨는데요. 그동안에는 조선 후기 이렇게 써오지 않았나요?

○ ○○○ **위원**

이 보고서는 제가 작성해서 좀 세부적으로 썼는데 같이 현장에서 조사했던 분들이 지나치게 딱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했는데요. 충분히 조선 후기로 해도 되는 유물이기는 합니다. 제가 애초에 너무 세기를 보고서에 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조사자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백자 상감 모란문 편병>

○ ○○○ **위원**

두 번째 유물입니다. 현재 제시된 명칭은 백자 상감 모란문 편병입니다만, 현장에서 조사를 했을 때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몇 분은 거의 청자에 가깝지 않나 싶을 정도로 유색에 녹색 기운이 강하게 감도는 작품이었습니다. 여기는 앞면, 뒷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면 혹은 다른 면'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쪽 면은 면1이라고 해서 171쪽 도판1 그리고 도판2는 각각 1면, 2면 이렇게 나눠보자면 문양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접합했던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외견상으로는 어느 정도 준수하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172쪽에 보시면 도7~도10에 보면 애초에 1면이라고 지정된 곳은 거의 8~9할 정도는 대부분 수리가 되어 있어서

유물 자체는 15세기 후반, 16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들로 편년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원형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상당 부분 수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지정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하였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백자 상감 연운문 자라병>

○ ○○○ **위원**

두 번째로 살펴보신 것은 편병이었는데요. 세 번째 유물은 자라병입니다. 자라병도 177페이지 X-ray 사진을 보면 윗부분, 아랫부분을 만들고 구연부를 하나 부착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조사 대상인 상감 백자는 아마 연질 계통이고 깊이 흑상감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조선 초에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되지 않았을까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선 전기의 상감 백자는 대체로 15세기 후반에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경상도 일원에 고령 등의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상감 백자를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전형적으로 현재 경기도 광주나 경상도 지역에서 확인됐던 사례들이랑 문양에 있어서 차이점이 많이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육안 관찰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유물 역시 177쪽에 보시면 도판7~도판9 같은 경우에 구연부, 특히 굽, 보통 도자기의 조형이랄지 제작시기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연부나 굽 같은 경우에 수리 흔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문양 형태나 수리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 <백자 철화 운룡문 호>

○ ○○○ **위원**

백자 철화 운룡문 호입니다. 기존에 이미 형태와 문양이 유사한 게 모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183쪽의 '도14'번을 보시면 물론 세부 용의 표현은 다릅니다만, 구연부의 연판문과 장식문 표현, 하단부에 약간 기하학적인 산문의 표현이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용이 들어가 있는 도상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유물이 이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유물들인데 높이들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일 비슷한 도상을 갖춘 유물과 실제로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유물은 높이가 47.6㎝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구연부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랄지 이것 역시 앞서 살펴봤던 청화 백자와는 다르게 체감율이나 좌우대칭이 약간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실제로 조사 차후와 과학분석보고서 작성해주신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182페이지의 '도8'처럼 실제로 저부에 상당 부분 수리 흔적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봤을 때 이 유물 역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자 철화 운룡문 호>

마지막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들은 입호라면 이 항아리는 원호, 동그랗습니다. 그런데 문양이 이것을 어떤 흐름상에서 용이라고 간주했으니까 용인 것이지 이것만 보자면 용을 바로 연상시키기는 어려운 문양입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운룡문이 워낙에는 청화로 제작됐다가 양란 이후에 간혹 철화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이 되면 다시금 청화백자로 제작되는 것 같고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철화 용문들은 지방에서 제작되거나 해서 많이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관요의 발굴 기준으로 봐서도 1650년대, 1660년대부터는 용의 비늘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성글어집니다. 그다음에 원주나 경기도 광주 외의 지역에서도 만들어지는데요. 이 작품 역시 어떤 제작지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187페이지의 도판5번을 봐

주시면 동체의 중·하단부와 또 도판6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체 구연부의 일부분이 다 수리·복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문양의 해학성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양의 상태나 완성도, 수리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것도 역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현장에서 판단했습니다. 이상 다섯 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 ○○○ **위원장**

조사자 의견에 다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팀장**

3번은 가결이고 나머지는 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 ○○○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CT를 찍을 만한 곳이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국립문화재연구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의뢰를 했는데 거부를 당해서 CT를 못 찍고 X-ray를 찍다 보니까 해상도나 두께 때문에 제작기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CT 촬영 장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T 찍어보면 제작기법 등을 정확히 다 볼 수가 있어서요.

□ <태교신기>

○ ○○○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적 및 고문서 분야입니다. 태교신기,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태교신기는 2023년도에 이미 사전심의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타 기관에 이와 유사한 자료, 태교신기가 있는지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다시 재신청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한바, 표에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만, 196쪽에 필사본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정고본으로 존재한다거나 이런 자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1938년도부터 석판본으로 이 신청 대상본을 대상으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석판으로 찍은 자료들이 그 이후에 유통되고 보급되어 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충분히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 **위원장**

같이 조사하신 ○○○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 ○○○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 ○○○ **위원**

그때도 약간 얘기가 나왔는데 정인보 선생님이 필사를 손으로 하셨는데 볼펜을 써 놓은 게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흔적이니까요.

○ ○○○ **위원장**

그러면 조사자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낙촌선생문집 목판, 귀암선생문집 목판, 정재선생문집 목판>

○ ○○○ **팀장**

다음 안건은 낙촌선생문집 목판 등 3건에 관한 것을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예. 서울시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아마 이담명 家의 전적이 한꺼번에 기탁되면서 같이 수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도장, 이원정, 이담명, 이 3代 인물의 문집이죠. 대표적인 17세기 영남 남인입니

다. 그런데 간행시점이 1937년인데, 그 이유가 신원이 안 돼서 계속 미루어졌다가 1871년 이때 돼서 시호를 받기도 하고 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이 책이 1938년 초간, 1937년 중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간행됐고 책판이 지금 고스란히, 완전하지는 않고 결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면이 2면, 3면, 4면 이렇게 결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퍼센티지로 치면 미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현재 유교책판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시기가 조금 뒤라는 것이지만 비교적 드물게 3代 문집이라는 게 이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충분히 서울시 유형문화재는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같이 조사 나가신 위원님,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 **위원**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목판들인데 이렇게 3대째 한꺼번에 그 집안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갖추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문집이라도 판이 여러 판이기 때문에 훼손돼서 결락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근래에 일제강점기, 유교책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래에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들도 보완해서 유교책판으로 해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6만여 점이지만 지금은 7만여 점인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국이나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이쪽에서 확실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 ○○○ **위원장**

○○○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 **위원**

네. 이 집안이 책이나 고문서 같은 것이 워낙 많이 도둑맞고 흩어져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인데 영남에서 아까워하는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집안인데요. 이런 기회에 지정해서 보존할 수 있는 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조사자 의견에 따라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정희 필 시고, 완당서첩>

○ ○○○ **팀장**

김정희 필 시고, 완당서첩입니다. 서예 분야의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추사 김정희의 서예, 두 점이 한 건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집안은 추사 집안하고 연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세품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조사위원들이 봐도 이전의 의견과 차이점은 없습니다. 역시 추사의 친필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렇다고 또 내용이 아주 희소한 것도 아니라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조사자 의견에 따라서 부결로 의결하겠습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입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12건이고요. 지정 논의는 2023년 10월 27일에 했고요. 2023년 12월 8일, 그다음에 올해 3월 8일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보에 예고를 해서 2023년 12월 28일부터 1월 27일까지 했고 양금신보 하나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전체 이 12건에 대해서는 오늘 지정 결의를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